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에 관한 일 연구

— 학교수준, 성, 거주유형, 출생순위를 중심으로 —

배 제 현*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결과 및 해석
- IV. 논 의
-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은 계속되는 발달단계를 거치는 동안 끊임 없는 분리과정 *separation process*을 경험하면서 개체화를 이룩해 나간다. 유아기에는 분리를 통하여 비록 부모가 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부모의 상 *image*을 키워 나가며, 청소년은 자기의 독자성과 개인적 정체감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부모에 대해 지금까지 지녀온 동일시 *identification*를 재통합해간다. 성인 후기에

접어든 부모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행해온 부모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흥미, 관심 또는 능력을 갖추어 가게 된다.

이상의 어떤 발달단계의 경우이든 공통된 점은 분리과정을 통해 각 개인이 각 단계에 적절한 심리적인 적응을 성취하여 “자기에 대한 감각” *sense of self*을 유지하고 높여간다는 점이다 (Newman & Newman, 1975). 그러므로 인생의 각 발달단계에서 맞게되는 분리-개체화의 과정, 즉 애착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리-개체화 현상을 M. S. Mahler 등(1975)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심리적 탄생” *Psychological Birth*이라고 불렀다.

Mahler등이 제시한 분리-개체화 과정은 대체로 생후 6개월 무렵에 시작하여 30개월 또는 36개월까지의 유아기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5개월간은 생후부터 3,4주간까지의 생물적 유기체로서의 생활인 자폐단계 *Autistic Phase*와 생후 1개월에서 5개월까지의 어머니와 유아가 혼

* 대구직할시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1부장

연일체인 것처럼 행동하는 공생단계 *Symbiotic Phase*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유아기의 분리-개체화란 유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부모와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내적인 심리구조가 형성되고 어머니와 자기사이에 경계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배제현, 1993, 12-13).

그러나 일찍이 P. Blos(1979)도 주장한 바와 같이 청소년 후기에 일어나는 두번째의 분리-개체화의 과정 역시 인간이 자아발달에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아발달과정인 분리-개체화가 청소년의 주요 발달과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인식되어져 왔었다. 실제로 Douvan과 Adelson(1966)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청소년의 대표적인 경험중의 하나(p.119)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분리-개체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후 첫 3년간에만 집중되어 왔었다(Sullivan과 Sullivan, 1980). 이에 대해 Blos(1979)는 유아기의 첫번째의 분리-개체화 과정과 구별하여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두번째의 분리-개체화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아기에 일어나는 분리-개체화 과정에 대한 Mahler의 이론을 청소년시기의 발달에 적용하여 청소년기를 두번째의 분리-개체화 시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Esman(1980)도 청소년기의 실험과 반향을 유아기 분리-개체화 과정의 연습단계와 비교하였다.

Blos에 의하면 첫번째의 분리-개체화가 이루어진 아동이 청소년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과거의 유아적인 대인관계로부터 독립하려는 새로운 변화를 다시 시도하게 되며, 이제까지 정서적으로 의존하였던 부모로부터 한사람의 성인으로 성숙하려는 준비로서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

하여 자신의 독립을 주장한다고 한다. Blos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가족 의존성의 분할” *shedding of family dependencies*은 유아기의 내면화된 대상으로부터의 정서적 이탈 *disengagement*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아동은 부모들의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도움없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모의 도움을 청소년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하여 일단 부정하고 거부하려 들지만 아직도 그들의 자아가 약하고, 그들이 느끼는 새로운 성적인 충동과 공격성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과 우울 또는 격동속에 빠져들기 쉽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부모대신에 연예인이나 영웅 등 대체물을 찾으려 애를 쓰게되거나 또는 이에 심취하기도 하는 등, 유아기적 유대를 부정하면서도 이를 계속 집착하려는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즉, 청소년들에게서의 분리-개체화는 심리적인 고통을 수반한 이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소년기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자아가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상태, 즉 심리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비교적 건강한 퇴행을 통해 유아기적인 대인관계를 정비하는 제2의 기회로 본 Blos는 부모나 다른 성인과의 의존적인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중요한 청소년의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분리-개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자아는 부모로부터 빌린 자아로써 남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청소년들은 부모자신의 불안과 부모의 청소년을 잡아두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보행기의 유아가 부모와 힘의 경쟁을 나누듯이 이들도 힘의 줄다리기를 하게 되며 그들의 감정이 격하게 된다. 즉, 유아처럼 양가감정을 갖게 되며 부모에 대한 사랑과 증오, 의존하고 싶은 욕망과 독립하

고 싶은 욕망,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 겹치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격동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와 별개의 “내가 원하는 나” 즉, 완전한 하나의 객체로서의 나를 발견했을 때 두번째의 분리-개체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의 분리-개체화 과정에 대한 Blos의 이론을 기초로 분리-개체화 과정이 제시된 바가 있다(홍강의, 1984).

Sullivan 등(1980)은 분리의 과정이 청소년의 심리발달에 있어 통합적인 역할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분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청소년기의 분리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가지 들고 있다. 첫째로,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부모에게서부터 친구들에게로 유대감이 옮겨가기 때문이며, 둘째로 청소년기는 자신의 친구들로부터의 분리에 대해서도 민감해질 수 있는 시기이며, 셋째로 비록 십대 이전에 현실 또는 환상적으로 분리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기에는 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분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넷째로 자율성과 자아정체감 성취의 발달에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분리가 이십대의 문제점으로서 흔히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분리경험은 위에 기술한 각각의 경우, 모두에서 그들의 적절한 관련체계 특히 가족체계(Farley, 1979)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장차 자녀가 집을 영구적으로 떠나가는 것에 대해 자녀와 부모 모두를 준비케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변화와 갈등 및 발달과

정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상담자 및 치료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분리-개체화에 관한 연구로는 청소년기의 자아발달을 논의하면서 분리-개체화의 과정과 그 이론적 관심을 제기한 연구(홍강의, 1984 ; 박아청, 1990)와 Mahler와 Hoffman(1984)의 이론을 기초로 분리-개체화 척도를 제작하여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배제현, 1993)가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개체화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제시된 청소년의 특성인 학교수준, 성, 거주유형, 출생순위에 따라 분리-개체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분리-개체화 연구는 주로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분리-개체화는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인 청소년 전기보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청소년 후기에서 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의 시간적 거리를 두어 입학 초기와 3학년이 되었을 때의 발달적인 양상을 비교한 종단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연령의 증가나 시간의 증가에 따라 분리-개체화가 증대되어감을 보여주고 있다(Rice, 199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기의 고등학생과 청소년 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수준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Lopez, 1986)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독립성 즉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높지 못했으며 자신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Campbell, 1984)로 상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셋째, 거주유형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거주유형 변인은 청소년이 자기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분리-개체화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Sullivan과 Sullivan(1980)은 대학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들이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개체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Anderson과 Fleming(1986)도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서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도 부모와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넷째, 출생순위에 관해 연구발표된 바에 의하면 개인이 한 가족에서 차지하는 출생순위는 개인의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있다(교육학용어사전, 1981, p. 55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분리-개체화가 학교수준, 성, 거주유형 및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특징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제 특성에 따른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수준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I : 청소년의 분리-개체화 수준은 학교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 청소년의 분리-개체화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 청소년의 분리-개체화 수준은 거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V : 청소년의 분리-개체화 수준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에 있는 2개 고등학교와 4개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여 학생 670명을 표집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편부모로 인해 질문지를 완성하지 않은 학생 25명을 제외하고 실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645명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고등학교는 대상학교를 선정한 뒤 해당학교의 2학년 편성학급들 중에서 임의로 2개 학급씩을 선정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대학생은 2학년 학생 중 협조가 가능한 교수의 교과과목 및 전공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누적퍼센트
학 교 수 준	대 학 생	260		40.3			40.3
	고 등 학 생	385		59.7			100.0
성	남	282		43.7			43.7
	여	363		56.3			100.0
거 주 유 형	동	539		83.6			83.6
	별	106		16.4			100.0
출 생 순 위	외	28		4.3			4.3
	첫	218		33.8			38.1
	둘	172		26.7			64.8
	셋	227		35.2			100.0
전	체	645		100.0			100.0

3. 측정 도구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Hoffman(1984)의 심리적 분리 척도(PSI)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문화에 알맞게 제작한 배제현(1993)의 “분리-개체화 척도”이다.

배제현의 “분리-개체화 척도”는 분리-개체화를 4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여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한 기능적 독립 13문항, 정서적 독립 11문항, 갈등적 독립 9문항, 태도적 독립 5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76문항(어머니:38문항, 아버지:38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나누어지며, 어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38문항이므로 총 가능점수는 최하 38점에서 최고 190점에 이른다. 분리-개체화 척도에 대한 문항의 실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자주 어머니(아버지)에게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기능적 독립)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란다”(정서적 독립)

“나는 어머니(아버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갈등적 독립)

“남자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아버지)의 견해와 비슷하다.”(태도적 독립)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수준, 성, 거주유형에 따라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 <가설 II>, 그리고 <가설 III>을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둘째, 출생순위에 따라 청소년기의 분리-개체

화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V〉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량분석과 Tukey의 사후검정방식에 의해 개별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가 청소년의 특성인 성, 학교수준, 거주유형, 출생순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학교수준에 따른 분리-개체화과정의 비교

청소년의 분리-개체화 과정은 그들의 학교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으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에 대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방식을

이용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에 대한 학교수준별 비교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을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수준별로 비교하기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분리-개체화 총점에는 $t=4.96$ 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45$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4.46$ 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표 2〉 학교수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분리-개체화 점수의 평균 및 차의 의의도 검증

구분	집단	평균	편차	df	t	P
전 체	대 학 교(260)	87.00	10.31	643	4.96	.001
	고등학교(385)	83.04	9.71			
기능적 독립	대 학 교	8.56	2.45	643	.45 (NS)	.650
	고등학교	8.47	2.42			
정서적 독립	대 학 교	35.99	4.50	643	4.46	.001
	고등학교	34.28	4.97			
갈등적 독립	대 학 교	28.03	6.15	643	5.93	.001
	고등학교	25.07	6.26			
태도적 독립	대 학 교	14.42	4.00	643	-2.37	.018
	고등학교	15.21	4.25			

〈표 3〉 학교수준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점수의 평균 및 차의 의의도 검증

구분	집단	평균	편차	df	t	P
전 체	대 학 교(260)	124.45	13.39	643	-.43	.667
	고등학교(385)	124.93	14.16		(NS)	
기능적	대 학 교	46.35	8.70	643	-2.53	.012
독립	고등학교	48.22	9.58			
정서적	대 학 교	38.84	6.16	643	1.09	.276
독립	고등학교	38.31	6.09		(NS)	
갈등적	대 학 교	23.85	5.70	643	3.00	.003
독립	고등학교	22.44	5.97			
태도적	대 학 교	15.41	3.85	643	-1.64	.102
독립	고등학교	15.96	4.39		(NS)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에서는 $t=5.93$ 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어머니로부터 갈등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적 독립에서는 $t=-2.37$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머니로부터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어머니에 대한 학교수준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대학생>고등학생이었으나, 태도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고등학생>대학생이었다.

이것은 연령증가에 따라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가설 I을 지지한다.

2) 아버지로 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에 대한 학교수준별 비교

다음 〈표 3〉은 아버지로 부터의 분리-개체화 과정을 학교수준별로 비교하기 위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총점에는 $t=-.43(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능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2.53$ 으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아버지로 부터 기능적인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1.09(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갈등적 독립에서는 $t=3.00$ 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로 부터 갈등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태도적독립에서는 $t = -1.64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아버지에 대한 학교수준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기능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고등학생 > 대학생이었으나, 갈등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대학생 > 고등학생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수준에 따라 청소년 전기보다는 청소년 후기에서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더 높으리라는 가설 I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2. 성별에 따른 분리-개체화과정의 비교

분리-개체화과정은 그들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II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집단에 대한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방식을 이용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에 대한 성별 비교

다음 <표 4>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을 남자와 여자집단으로 비교하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 4>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분리-개체화 총점에는 $t = -3.51$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총점에서 볼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1.52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74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갈등적 독립에서는 $t = -4.61$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어머니로부터 갈등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적 독립에서는 $t = -3.31$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어머니로부터 태도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어머니로부터 분리-개체화 점수의 평균 및 차의 의의도검증

구분	집단	평균	편차	df	t	P
전 체	남(282)	83.06	10.08	643	-3.51	.001
	여(363)	85.86	10.02			
기능적 독립	남	8.67	2.51	643	1.52 (NS)	.129
	여	8.38	2.36			
정서적 독립	남	35.13	5.23	643	.74 (NS)	.459
	여	34.85	4.55			
갈등적 독립	남	24.97	6.16	643	-4.61	.001
	여	27.27	6.36			
태도적 독립	남	14.28	3.88	643	-3.31	.001
	여	15.37	4.32			

요약하면, 어머니에 대한 남·여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전체적인 면에서 여자>남자였고,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의 차원에서도 여자>남자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족과 부모의 기대가 여자보다는 남자에 치우쳐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높으리라고 설정한 가설 II를 지지한다.

2) 아버지로 부터 분리-개체화과정에 대한 성별 비교

다음 <표 5>는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한 결과이다.

<표 5>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의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총점에는 $t = -3.66$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총점에서 볼 때 아버지로 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기능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89(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1.10(P > .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갈등적 독립에서는 $t = -3.60$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아버지로 부터 갈등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적 독립에서는 $t = -6.82$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아버지로 부터 태도적으로 더 많이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아버지에 대한 남·여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전체적인 면에서 여자>남자였고, 갈등적 독립과 태도적 독립의 차원에서도 여자>남자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 가설 II를 지지한다.

<표 5> 성별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점수의 t검증표

구분	집단	평균	편차	df	t	P
전 체	남(282)	122.50	13.25	643	-3.66	.001
	여(363)	126.48	14.06			
기능적 독립	남	47.10	9.14	643	-.89 (NS)	.376
	여	47.75	9.38			
정서적 독립	남	38.82	6.25	643	1.10 (NS)	.272
	여	38.29	6.01			
갈등적 독립	남	22.07	6.08	643	-3.60	.001
	여	23.74	5.65			
태도적 독립	남	14.51	3.84	643	-6.82	.001
	여	16.70	4.20			

3. 거주유형에 따른 분리-개체화과정의 비교

청소년의 분리-개체화는 그들의 거주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II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동거와 분리거주로 구분하여 분리-개체화 점수에 대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방식을 이용,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동거”로 부모를 떠나와 자취,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와 친척집에서 기거하는 것을 “별거”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거주유형별로 구분해 본 결과, 별거가 고등학생의 경우는 385명 중에서 14명에 불과하고 대학생의 경우는 260명중 92명이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엄밀한 분석을 위해 대학생의 경우만 분석하였다.

1) 어머니로 부터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거주 유형별 비교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거주유형별 비교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의하면, 별거와 동거의 어머니에 대한 분리-개체화 총점에는 $t = -3.20$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별거가 동거보다 총점에서 볼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2.70$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보다 어머니로부터 기능적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3.16$ 으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청소년이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정서적

<표 6> 거주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분리-개체화 점수의 평균 및 차의 의의도 검증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df	t	P
전 체	동 거(168)	85.51	10.42	258	-3.20	.002
	별 거(92)	89.72	9.58			
기능적 독립	동 거	8.26	2.44	258	-2.70	.007
	별 거	9.11	2.38			
정서적 독립	동 거	35.35	4.40	258	-3.16	.002
	별 거	37.16	4.46			
갈등적 독립	동 거	27.51	6.15	258	-1.86 (NS)	.065
	별 거	28.98	6.06			
태도적 독립	동 거	14.39	3.97	258	-.14 (NS)	.886
	별 거	14.47	4.08			

으로 어머니에게서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에서는 $t = -1.86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태도적 독립에서는 $t = -.14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어머니에 대한 거주유형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전체적인 면에서 별거 > 동거였고, 기능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별거 > 동거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증대시키며,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서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므로 가설 III을 지지한다.

2)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거주유형별 비교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체화에 대한 거주유형별 비교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의하면, 별거와 동거의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총점에는 $t = -.75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능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2.21$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 청소년보다 아버지로부터 기능적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t = -3.81$ 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청소년이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정서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 독립에서는 $t = -1.33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태도적 독립에서도 $t = .37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아버지에 대한 거주유형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기능적 독립의 차원에서 동거 > 분리거주였으나, 정서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분리거주 > 동거였다.

<표 7> 거주유형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점수의 평균 및 차의 의의도 검증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df	t	P
전 체	동 거(168)	123.99	13.91	258	-.75	.455
	별 거(92)	125.29	12.40		(NS)	
기능적 독립	동 거	47.22	8.81	258	2.21	.028
	별 거	44.75	8.30			
정서적 독립	동 거	37.79	6.28	258	-3.81	.001
	별 거	40.76	5.46			
갈등적 독립	동 거	23.51	5.75	258	-1.33	.184
	별 거	24.49	5.58		(NS)	
태도적 독립	동 거	15.48	3.88	258	.37	.715
	별 거	15.29	3.80		(NS)	

이러한 결과는 분리-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서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설 III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4. 출생순위에 따른 분리-개체화과정

청소년의 분리-개체화는 그들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IV를 검증하기 위하여, 출생순위별로 집단을 구분한 후 그에 따른 분리-개체화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량분석과 Tukey의 사후검증방식을 이용,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출생순위별 집단은 남·여에 관계없이 한명뿐일 경우 외동으로, 두명 이상의 경우 첫째일 때 “맏이”로, 둘째는 “둘째”로, 세명이상에서 셋째 이후로는 “셋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1)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 과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및 Tukey의 사후검증방식을 이용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을 보면, 어머니로부터 분리의 총점에 대한 출생순위별 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F=5.54$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Tukey의 사후검증방식을 이용해 개별비교한 결과 $P<.05$ 수준에서 맏이와 둘째 및 셋째 이상이 외동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어머니로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인 독립의 영역에서는 변량분석 결과 $F=.56(P>.05)$ 으로 출생순위별 집단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인 독립의 영역에서는 변량분석 결과 $F=3.39$ 로 $P<.05$ 수준에서 출생순위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다시 Tukey사후검증방식을 이용해 개별비교한 결과 $P<.05$ 수준에서 셋째 이상이 외동보다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적인 독립의 영역에서는 출생순위별 집단간에 변량분석 결과 $F=4.49$ 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ukey의 사후검증방식을 이용해 개별비교한 결과 $P<.05$ 수준에서 둘째와 셋째이상이 외동보다 어머니로부터 갈등적인 독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적 독립의 영역에서는 변량분석 결과 출생순위별 집단간에 $F=1.08(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어머니에 대한 출생순위별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전체적인 면에서 둘째, 셋째이상 > 외동이었고, 정서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셋째이상 > 외동이었으며, 갈등적 독립의 차원에서도 둘째, 셋째이상 > 외동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동과 맏이에게 주는 가족과 부모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외동이나 맏이의 경우가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낮으리라고 본 이론적인 배경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가설 IV를 지지한다.

2)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체화 과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변량분석 및 Tukey의 사후검증방식을 이용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출생순위별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개체화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df	t	P	사후검증Tukey
분리 개체화 / 전 체	외동(28)	78.36	9.78	3	5.54	.0009	말이>외동 둘째>외동 셋째>외동 *
	말이(218)	83.77	10.18				
	둘째(172)	85.05	10.39				
	셋째(227)	85.93	9.62				
기능적 독립	외 동	8.89	2.62	3	.56	.6404	(NS)
	말 이	8.62	2.30				
	둘 째	8.44	2.48				
	셋째이상	8.41	2.51				
정서적 독립	외 동	32.82	5.52	3	3.39	.0178	셋째이상>외동 *
	말 이	34.56	5.21				
	둘 째	35.11	4.75				
	셋째이상	35.52	4.40				
갈등적 독립	외 동	22.86	5.31	3	4.49	.0040	둘째>외동 셋째이상>외동 *
	말 이	25.65	6.36				
	둘 째	26.81	6.41				
	셋째이상	26.86	6.33				
태도적 독립	외 동	13.79	4.22	3	1.08	.3582	(NS)
	말 이	14.94	4.46				
	둘 째	14.69	4.03				
	셋째이상	15.14	3.97				

*=P<.05

〈표 9〉 출생순위별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체화 점수에 대한 변량분석표

구분	집단	평균	표준편차	df	F	P	사후검증Tukey
분리 개체화 / 총점	외동(28)	121.46	12.35	3	1.37	.2498	(NS)
	말이(218)	123.70	13.74				
	둘째(172)	125.55	14.56				
	셋째(227)	125.52	13.52				
기능적 독립	외동	46.00	8.68	3	.31	.8199	(NS)
	말이	47.72	9.45				
	둘째	47.56	9.63				
	셋째이상	47.33	8.93				
정서적 독립	외동	38.75	5.44	3	1.73	.1590	(NS)
	말이	37.90	6.62				
	둘째	38.37	6.07				
	셋째이상	39.20	5.68				
갈등적 독립	외동	22.71	5.48	3	1.83	.1407	(NS)
	말이	22.30	6.17				
	둘째	23.62	5.74				
	셋째이상	23.27	5.75				
태도적 독립	외동	14.00	3.89	3	1.86	.1353	(NS)
	말이	15.78	4.48				
	둘째	16.01	4.35				
	셋째이상	15.72	3.75				

〈표 9〉를 보면, 아버지로 부터 분리-개체화의 충점에 대한 출생순위별 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F=1.37(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하위 독립영역인 기능적 독립($F=.31, P>.05$), 정서적 독립($F=1.73, P>.05$), 갈등적 독립($F=1.83, P>.05$), 그리고 태도적 독립($F=1.86, P>.05$)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의 분리-개체화과정은 출생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이 주로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가설 IV를 기각한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던 문제는 청소년의 특성인 학교수준, 성, 거주유형, 출생순위에 따라 분리-개체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가설에서 기대했던 대로 이들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주로 대학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한데 반하여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학교수준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인 면에서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로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분리-개체화는 연령증가에 따라 발달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정체감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인 청소년 전기보다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인 청소년 후기에서 분리-개체화가 잘 되리라고 본 연구자의 기대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연령증가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발달경향은 2년간의 시간적 거리를 두어 신입생때와 3학년이 되었을

때의 발달적인 양상을 비교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연령증가 도는 시간의 증가에 따라 분리-개체화가 증대되어 간다고 밝힌 Rice(1992)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태도적 독립과 아버지에 대한 기능적 독립의 경우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분리-개체화가 더 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여 1,2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리-개체화와 대학적응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한 Lopez 등(1986)의 연구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지위와 자기 부모와의 관계지각에 대해 평정한 Campbell(198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그들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혀 그 결과가 상충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두에게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분리-개체화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적인 독립과 태도적인 독립의 차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분리-개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독립적이라는 Campbell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자의 경우 결혼 후 자신의 부모로 부터 떠나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되기가 쉽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결혼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가계를 이어나가는 계승자의 책임을 갖고 있기때문에 부모로 부터의 분리-개체화가 여자보다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거주유형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에 의하면, 부모로 부터 분리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독립의 차원에서는 분리거주 청소년이 동거 청소년보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더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ullivan과 Sullivan(1980)은 대학으로 거주지를 옮긴 학생들이 그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의 양이 통제적으로 유의하게 증대하였다고 보고했으며, Anderson과 Fleming(1986)도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서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넷째, 출생순위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어머니에 대해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심리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형제수가 많고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지며, 외동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동의 경우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공생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로부터 분리-개체화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분리-개체화 모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그 수준이 높다.

셋째, 부모로부터 분리거주(별거)하고 있는 청소년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보다 분리-개체화의 수준이 더 높다.

넷째, 출생순위에 따른 분리-개체화의 차이는 어머니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형제수가 많고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분리-개체화가 더 잘 이루어지며 외동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분리-개체화가 가장 어렵다.

2. 제 언

본 연구의 추진과정과 도출된 결론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국민학교 고학년생과 중학생까지로 넓혀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분리-개체화의 발달적인 경향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분리-개체화를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의 관련성을 규명해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분리-개체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생활지도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부 록〉

질 문 지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청년기에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진실되게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귀한 참여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청소년의 생활지도 및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질문지를 차례로 읽고 각 질문의 응답요령과 같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 청소년종합실 배 제 현

〈응답자 사항〉

1. 학교(학과) / 학년
2. 성별: 남(), 여()
3. 거주 유형: 부모와 동거() 하숙()
 기숙사 () 자취() 친척집()
4. 부모유무: 양친() 어머니만() 아버지만() 양친부재()
5. 출생순위: 외동()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분리-개체화 척도 질 문 지

이 질문지는 평소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사실 그대로를 다음의 응답요령과 같이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응답요령〉

다음의 각 문장이 여러분에게	전혀 다름	대체로 다름	그저 그렇다	대체로 같음	거의 같음
# 거의 같다고 생각되면	1	2	3	4	⑤
# 대체로 같다고 생각되면	1	2	3	④	5
# 같지도 다르지도 않으면	1	2	③	4	5
# 대체로 다르다고 생각되면	1	②	3	4	5
#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면	①	2	3	4	5

어머니와의 관계*

	전혀 다름	대체로 다름	그 저 그렇다	대체로 같음	거의 같음
1.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를 떠나 있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란다.	1	2	3	4	5
2. 나는 항상 어머니와 싸움(논쟁)하기를 즐긴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 어머니를 비난한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항상 어머니에게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1	2	3	4	5
5. 어머니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1	2	3	4	5
6. 나는 어머니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2	3	4	5
7. 나는 어머니를 보다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더욱 더 가까이에 사셨으면 한다.	1	2	3	4	5
8. 여성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의 견해와 비슷하다.	1	2	3	4	5
9. 나는 자주 어머니에게 나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1	2	3	4	5
10. 나는 때때로 어머니께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11. 나는 어머니를 떠나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12. 나는 어머니가 나를 너무 많이 과잉보호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13. 남자의 역할에 관한 나의 견해는 어머니의 견해와 비슷하다.	1	2	3	4	5
14. 나는 중요한 물품을 어머니의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없다.	1	2	3	4	5
15. 나는 어머니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1	2	3	4	5
16. 나는 어머니가 나를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1	2	3	4	5
17. 나는 때때로 단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걸기도 한다.	1	2	3	4	5
18. 나의 종교적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1	2	3	4	5
19.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이 기대하신다.	1	2	3	4	5
20. 나는 내가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5
21. 어머니는 내가 용돈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 원 질문지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문항내용이 “어머니와의 관계”와 동일하므로 생략하였음.

	전혀 다름	대체로 다름	그저 그렇다	대체로 같음	거의 같음
22. 나는 방학때 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1	2	3	4	5
23. 나는 때때로 어머니가 나를 좀더 어른처럼 대해주셨으면 한다.	1	2	3	4	5
24. 나는 방학때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나면 어머니를 떠나기가 힘이 든다.	1	2	3	4	5
25. 나는 주말에 도시를 벗어나는 계획을 세울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26. 나는 자주 어머니께 화가 난다.	1	2	3	4	5
27. 나는 우리 어머니가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머니가 한 것이라면 듣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28. 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머니에게 여쭙어 본다.	1	2	3	4	5
29. 어머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1	2	3	4	5
30. 나는 사소한 일로 어머니와 논쟁을 한다.	1	2	3	4	5
31. 천지창조에 대한 나의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1	2	3	4	5
32. 나는 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어머니와 더 가까운 것 같다.	1	2	3	4	5
33. 사후 세계에 대한 나의 신념은 어머니의 신념과 비슷하다.	1	2	3	4	5
34. 나는 방학중의 계획을 세울 때 어머니의 조언을 요청한다.	1	2	3	4	5
35. 나는 때때로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다.	1	2	3	4	5
36. 나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1	2	3	4	5
37. 나는 어떠한 일이 잘못될 때 마다 어머니를 찾는다.	1	2	3	4	5
38. 나는 때때로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한다고 얘기할 때 화가 난다.	1	2	3	4	5

참 고 문 헌

- 락아청. 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 배제현. 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 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사대 교육연구소. 1981.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 배영사.
- 홍강의. 1984. 「제2개별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정신의학보, 제8권, 12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pp.395-400.
- Anderson, S. A., & Fleming, W. M. 1986. "Late adolescents' home-leaving strategies : Predicting ego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Adolescence*, 21(82), 453-459.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Donovan, J. M. 1975. "Identity status and interpersonal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37-55.
- Esman, A. H. 1980.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d the rapprochement phenomenon." *Adolescent Psychiatry*, 8, 320-331.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2), 170-178.
- Lopez, F. G., Campbel, V. L., & Watkins, C. E. 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1), 52-56.
- Mahler, M. S. 1968.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Volume I: Infantile psych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 Basic Books.
- Newman, B. M., & Newman, P. R. 1975. *Development Through Life*. Illinois : The Dorsey Press.
- Sullivan, K., & Sullivan, A. 1980. "Adolescent-parent sepa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93-99.